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비상'

전북농협, 긴급 대책 회의 열고 차단 방역 총력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부안군 백산면 고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검사 결과가 3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긴급하게 비상방역대책회의를 4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재호 본부장은 농협의 방역주진 사항을 점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 강화로 가금농가에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10월부터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축협에서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축협 공동방역단 차량 46대를 활용한 야생조류 철새도래지, 가금농가 진

출입로 등의 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북농협은 가축질병 발생 시 초동대응에 긴급 투입하기 위한 방역 물품 보관 비축기지를 최근 2개소를 추가하여 6개소(경읍, 고창, 부안, 완주, 임실, 남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비축기지에는 생선회 218톤, 소독약 400리터, 방역복 497박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인 부안지역에는 축협을 통해 생선회 18톤을 가금농가 등에 지원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겨울철 야생철새의 지속적인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철새도래지 방문 자체를 요청드린다”며, “지난해 고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부안군 백산면 고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검사 결과가 3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긴급하게 비상방역대책회의를 4일 개최했다.

병원성 AI가 야생조류 발생 후 한 달여 만에 가금농가에서 발생했던 만큼 가금농가는 개인위생 철저, 농장 매일

소독·신발 갈아 신기·모임참석 자제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건협 전북도회  
신임 도회장 당선

임근홍 유림건설 대표

도내 3,000여 전문건설업체를 대변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이하 협회)의 제12대 도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결과, 단독 입후보했던 (유)유림건설 임근홍 대표이사가 대표회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제12대 도회장에 당선되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전주 리한 호텔에서 대표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1 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참석한 대표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도회장 보궐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임근홍 대표이사의 당선이 확정되어 11월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제12대 도회장의 잔여 임기 3년동안 협회를 이끌게 되었다.

전임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전북도회 회장 자리에 임근홍 당선인이 단독 후보 등록으로 큰 잡음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어 전라북도 전문건설업체가 새로이 일심단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임근홍 당선인은 “어려운 시기 에 중책을 맡았으나 민족 더러우 협회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전임 김태경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회원사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늘 회원사와 소통하는 협회, 회원사를 위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딸기 명인의 영농 비결 들으러 왔습니다’

김두호 농진청 차장

2013년 채소부문

농업기술명인 찾아



김두호 농진청 차장은 4일 경남 거창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 농촌진흥청이 선정함)과 사과재배 및 시과즙을 생산하는 청년 청업농업인을 각각 만나 농업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경남농업기술원의 사과이용연구소를 방문하여 우량 신품종 육성연구 추진성과와 사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 및 특허·기술이 전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 받았다.

먼저 김 차장은 2013년 채소부문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된 뮤지붕 명인(농장명 봉농원)의 농장을 찾아 딸기 생육상황을 살피고, 부가가치 청출을 위한 명인의 영농 비결 등을 청취했다.

류 명인의 딸기농장은 생산, 가공, 체험·관광을 결합한 농촌융복합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장실습교육장으로 지정돼 딸기 재배 이론·실습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김두호 차장은 “청년들의 농식업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및 새로운 사업 범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공 청업을 위한 기술지원과 컨설팅(전문지도) 등 다양화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농업기술원 사과이용연구소를

찾은 김두호 차장은 연구시설 및 시험재배포장 등을 살펴보고, 지역특화자목 육성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사과이용연구소는 ▲소비·수요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품종 육성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기술 및 재배기술 연구 ▲이상기상에 대응한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 ▲사과 소비 확대를 위한 기능성분석 및 가공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두호 차장은 “특화작목별 연구 기반시설 고도화를 추진해 최적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특화작목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몸에 좋아요… 기능성 무 연구 진행



4일 원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뿌리채소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새로 육성한 기능성 무의 생육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속 자작무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풍부하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임실 복승아·딸기, 전국에 널리’

임실군조공법인 박상용 팀장

‘함께하는 농협인상’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4일 정례조회에서 함께하는 농협인상 수상자로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박상용 팀장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농협인상’은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공이 있는 직원 중 농가소득 증대, 신용·경제사업 활성화 등 사업추진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수상자인 박상용 팀장은 2012년 조공법인에 입사하여 원예농산물 판매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신회 조직발

률 및 농가소득증대에 힘써왔다.

특히,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티켓화 능력을 발휘하여 임실군 공선조직의 규모화 및 상품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임실군조합



## 전북특구, 스타트업 발굴 나서

‘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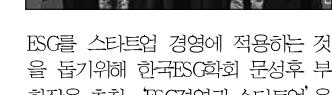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 특구본부(본부장 조용철 이하 전북특구본부)는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특구×스타트업 데모데이’를 4일 개최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전북특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특구 특화분야인 농생명, 융복합생재부품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투자자에게 소개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참여한 스타트업 8개사(▲카이테크, ▲아이원, ▲에스첨단소재, ▲예진약방, ▲씨비이이치, ▲티플 기술, ▲집플자, ▲와우차우)는 자동차부품, 배터리, 수소 저장용기, 헬스케어,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 아이템을 8인의 전문 투자심사위원에게 선보였다.

이 중 집플자, 티플기술, 와우차우 등 3개 기업은 전북특구의 수요기반 면토링 IR 특화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한 결과, 액셀러레이팅 전문기업인 (주)로간(주)유니파 총 5억 원 규모의 Seed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글로벌 투자 트렌드로 부상한



ESG를 스타트업 경영에 적용하는 것을 돋보이며 한국ESG화회 문성후 부회장을 초청, ‘ESG경영과 스타트업’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전북특구본부는 올 한해 61개의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했고, 기업의 투자 유치 DNA 역량 강화를 위해 IR 교육 및 멘토링 등 7회에 걸친 IR 행사를 진행하며, 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했다.

그 결과 10월 말까지 87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으며, 연말까지 117억 원의 성과가 기대된다.

조용철 전북특구본부장은 “우수 기업의 Seed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시리즈 A에서 C까지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데모데이가 전북특구 기업의 투자유치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의 미중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혁신의 길, 미래 있는 하늘길’

남원경제발전협,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IT융합산업진흥원과 전문가 초청 포럼

남원경제발전협의회(회장 박준길, 이하 남경협)와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이하 산업협), (사)한국IT융합산업진흥원이 공동주최하는 ‘남원 혁신의 길, 미래를 찾는 하늘길’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13일(토) 춘향문화회관에서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2020년 한국형 도심형공교통(UAM) 로드맵 발표에 따라 국내 13조 규모의 항공·UAM분야가 새로운 미래시대로 떠오르고 있어 추진된 것으로, 현대 자동차, LGC, 한화시스템 등 국내 대기업과 여러 지자체(인천광주, 대구광주)에서도 투자개발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경협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IX드론활용센터 100억 투자, 남원시 24억 투자 업무협약 체결을 계

기로 남원에 차세대 도심 항공클러스터 조성과 농·축산 드론산업의 유통성을 일리기 위해 관계 기관 전문가들과 추진하게 되었다. 포럼은 4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항공 분야를 통한 남원의 관광자원의 연계성과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형공교통(K-UAM) 로드맵에 따른 남원의 UAM 도시생태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와 패널 토의를 진행되며, ‘드론의 신도시 생태계’라는 주제로 건국대 김상호 교수가 4차 산업 기술전략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발표하고, 산업협 권희춘 박사를 좌장으로 5명의 각 기관 전문가들과 토의를 진행하며, 발표와 패널 토의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산업협의 주관 하에 각 분야 드론들을 시연하고 다양한 활용예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박준길 회장은 “남경협은 남원 발전을 위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 화합과 남원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활동을 주기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한다며, 남원의 미래산업을 여는 신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만드는 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수칙 준수가 지름길